죄사함, 본전찾기냐 혁명적 성취냐?

(시편 32:1~2)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죄사함, 본전 찾기냐 혁명적 성취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죄사함, 본전 찾기냐 혁명적 성취냐'
어제에 이어서 시편 32편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2절을 통해 죄와 죄사함의 문제에 집중해보도록 합니다. 제목에서 '본전 찾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전'이라는 말은 장사의 밑천을 말하는 것인데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어떤 일의 성취가 없는 단순한 중립적 출발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던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것은 본전 찾기인 것일까요? 죄사함에 대해서는 이 본전 찾기의 의미가 장사에서처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로 가야 하는 사람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대구를 지나 경주까지 가게 되었다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자신의 잘못 됨을 깨달았다고 해도 분기점인 대전까지 돌아와서 다시 여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에서 곧바로 죄사함이 일어나면 그 지점에서 여수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50년 60년 70년 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늦게나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그 자리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잘 살아온 사람이 60살에 이룬 성취만큼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품꾼들의 품값이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일찍 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대로 정해진 품삯을 지급 받았을 뿐입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전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70살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본전 찾기가 빠듯합니다. 30살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형편에 놓여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감옥에서 죄사함을 받을지라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은 성취중립적인 본전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제 인류 최고의 위대한 발견을 불이나 전기가 아닌 죄라고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나의 생애의 최고 발견은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의 발견이 최고의 위대한 발견인 이유는 반드시 죄사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그 순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아닙니까?

이 위대한 발견인 죄의 발견은 불이나 전기 같은 것들의 발견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불이나 전기는 지속해서 사용해야하는 것이기에 위대한 발견이지만, 죄의 발견은 마치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한다면 고맙고 감사한 발견일 것입니다. 암과 마찬가지로 죄는 없애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발견이 위대합니다. 발견하지 못한 죄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발견되지 못한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죄사함은 잘못 간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른 길로 만드는 마법과 같은 신비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을 단순히 죽은 뒤에 심판을 면하고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의미를 2/3는 내다버리는 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려지던 2/3를 되찾아서 우리의 삶에 혁명적 성취를 만끽하는 삶을 살기위한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죄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죄사함에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죄는 본문에 나온 대로 허물과 죄와 정죄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물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것을 공표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찾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다음 단계의 죄는 히브리어 '하타아'로서 '표적을 빗 맞추다, 길을 잃다'라는 뜻의 '하타'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이라는 표적을 잡은 것입니다. 돈이라는 표적을 잡으면 돈을 벌어서 마음을 채움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녀라는 표적을 잡으면 자녀를 잘 키워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빗 맞추고 다른 과녁에 마음이 붙어버린 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등 돌린 죄에 대해서 죄사함이 필요하며, 과녁에서 빗나간 죄에 대한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죄를 뜻하는 왜곡하고 구부러짐의 '아운'이라는 단어에 대한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세상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세상 것들을 마음에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구부러진 죄에 대한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허물에 대한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죄사함이라고 표현하였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짐을 들어 올리다, 짐을 들어 나르다.’라는 뜻의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의 허물을 짐을 들어 올리듯이 하고 짐을 나르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어 올리고 허물을 들어 나른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앞서 허물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반역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죗값이 무겁다는 말로서는 의미가 너무 축소되고 흐려집니다. 여기에 죄에 대해서 ‘짐을 들어 올린다’라는 뜻의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허물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서 기쁘고 만족을 얻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표시한 것이고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에 채울 것들을 찾으려는 방향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등 돌림의 반역죄 속에는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삶 전체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동반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순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수고스럽고 짐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하는 죄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 안으로 흡입하는 것만을 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세상은 등 뒤로 놓이게 되고 내 육체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살아주시는 것이 됩니다. 직장 취직 결혼 등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며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바로 에덴의 삶입니다.
빈 마음에서 생겨난 흡입력으로 하나님을 많이 모셔 들이고 하나님 부자가 되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면 마음을 채울 것들로서 자녀가 눈에 띕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 키우는 것이 그렇게 수고스럽고 짐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 수고를 깨달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짐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을 떠안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이 생겨난 이유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멍에가 가벼우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 떠맡으셔야 했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시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만을 모셔 들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 사명은 마음에 하나님을 많이 모셔 들임으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향한 사명은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이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는 말씀이 '허물을 들어 나른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은 죄사함을 통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짐을 뜻합니다. 나의 유일한 책임은 마음에 하나님을 많이 모셔 들여서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삶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직도 세상일에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의 판단과 책임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계획을 수행해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세상에 대한 사명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10~11절을 보면 결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허물에 대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림으로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상태를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가히 혁명적인 성취입니다.

이 죄사함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는 고백을 통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세상에 대한 죽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음으로 생겨난 흡입력이 더는 세상을 향해 작동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는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향함을 뜻합니다. 하늘을 향할 때에 정확한 과녁을 맞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세상은 저절로 살아지는 이 기분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표적에서 빗나간다.'라는 뜻입니다.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왜 가려진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가려진다'라는 동사는 '덮는다(cov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음을 뜻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죄가 가려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옥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은 닿기 때문에 피하여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덮어서 가리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타아'라고 표현된 과녁을 빗맞힌 죄는 수치스러움과 더러움을 핵심적 내용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려질 것은 없는데 가려진다고 하는 이유는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명동 거리에 놓인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면 몸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성격이 바로 이렇게 가려야만 하는 수치스러움을 뜻하므로 굳이 '덮는다, 가린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녁에서 빗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일까요?
하나님께 등 돌린 자가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세상으로 흡입력을 발동합니다. 돈이라는 과녁을 찾았다면 돈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마음은 하나님만이 들어오시도록 하나님 맞춤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맞춤형으로 지어진 빈 마음에 돈을 담을 때에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청결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은 있지 않아야 될 것이 엉뚱한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러움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수치스러운 이유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어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 돌로 치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여자의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덮음과 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마음에 담아서 만족하려 하고 있다면 더러움입니다. 자녀는 더럽지 않고 내 마음도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하는 곳이기에 자녀를 마음에 담으려 할 때에 둘 다 더러워지고 맙니다. 웨딩드레스와 김치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모두 깨끗

하지만 하나로 뭉쳐지면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피조 될 때에 그 마음은 하나님만을 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저 팽개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뜻을 적용하시고 실천해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마음 바깥에 둔다고 해서 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이기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것은 간음하다 백주에 들키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움입니다.
이 수치스러움과 이 더러움을 제거해주신다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 사함의 효과입니다. 여기에 하늘을 나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완전한 더러움과 완전한 수치스러움에서 빠져나올 때에 삶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할 때에 한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만큼 만족한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가장 만족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가장 기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녀를 마음에 담는다면 자녀도 더러워지고 맙니다. 김치를 만졌던 손으로 돈을 만지면 돈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자녀를 예뻐하면서 만지면 만질수록 김칫국물이 잔뜩 묻어서 더러워집니다. 이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뜻의 '로하솨브'라는 단어입니다. 죄가 가려지고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도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가를 주님의 십자가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 곤란 어려움 역경들은 단 하나도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죗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를 상번제의 어린양에게로 전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 탓으로 돌린다.'라는 뜻의 '로하솨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십자가 생활화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과녁을 빗맞히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죄의 체질들이 죄악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루터는 이를 두고 "날마다 죽는다(daily baptism)"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생활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과녁을 향하여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례 받고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원죄의 체질이 발동하는 것을 감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과녁으로 삼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주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오늘도 주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역사적으로 일어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수없이 반복되는 죄의 순간들에 대해 지금 나의 사건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의 사건이고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죄의 체질로 인해서 벌어진 죄악의 값을 주님께서 치르셨고, 그로 인해서 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안으실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사함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혁명적 성취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세 가지 죄를 극복하고 세 가지 측면의 죄사함을 누림으로서 혁명적 성취를 날마다 만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